



중국소수민족문학발전프로젝트

중국 당대

문학작품선집

— 2016 —

산문 **선집**



중국작가협회 편

작가출판사

중국 당대
문학작품선집
—2016—

산문선집

중국작가협회 편

작가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中国当代文学作品选粹(2016)·朝鲜语卷·散文卷/中国作家协会编. —北京:作家出版社, 2019.6

ISBN 978-7-5212-0546-6

I. ①中… II. ①中… III. ①中国文学-当代文学-作品综合集-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②散文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217.1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9)第093236号

中国当代文学作品选粹(2016)·朝鲜语卷·散文卷

编 者:中国作家协会

责任编辑:史佳丽 李亚梓

特约编辑:金美玲

装帧设计:李 慧

出版发行:作家出版社有限公司

社 址:北京农展馆南里10号 邮 编:100125

电话传真:86-10-65067186(发行中心及邮购部)

86-10-65004079(总编室)

E-mail:zuojia@zuojia.net.cn

<http://www.zuojiaclub.com>

印 刷:北京玺诚印务有限公司

成品尺寸:170×240

印 张:20.5

版 次:2019年6月第1版

印 次:2019年6月第1次印刷

ISBN 978-7-5212-0546-6

定 价:40.00元

作家版图书,版权所有,侵权必究。

作家版图书,印装错误可随时退换。

심령을 잇는 무지개다리를 놓기 위해

단정, 백경승 지음
우광훈 옮김

조선문
권



서언

중국작가협회에서 주최하고 실시하는 중국소수민족문학발전프로젝트 중의 번역부축전문대상은 그 풍부한 내용과 독특한 창의성으로 세인의 눈길을 끌었다. 이는 중국작가협회가 몽골어, 장어, 위글어, 까자흐어, 조선어 5종 언어로 된 《민족문학》잡지를 성공적으로 창간한 기초에서 진행된 것으로서 60년간 중국소수민족문학의 량적인 축적과 질적인 제고가 가져다준 풍만한 성과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소수민족문화, 소수민족번역, 소수민족문학 사업이 서로 결합된 유익한 실천이며 탐구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 소수민족문학의 한어문번역은 일찍부터 있었다. 예를 들면 옛날의 <월인가(越人歌)>, <랑백가(狼白歌)>는 전국시기부터 진한시기를 아우르는 사이에 그 선례를 보였다. 그 후 중국문학의 한어와 소수민족언어의 상호 번역이나 한어와 외국어의 상호 번역 중의 소수민족문학의 번역은 그 흐름의 끈을 끊지 않고 맥을 이어왔고 우리나라 여러 민족 사이와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문학과 세계문학이 서로 료해하고 서로 흠상하고 서로 배우고 함께 발전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물론 력사적인 원인으로 하여 오랜 기간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상태에 머물러 전체성이나 지속적인 기세를 이루지 못했고 정연한 소수민족문학번역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오늘날 개혁개방사업이 부

단히 심화되면서 종합국력이 높아져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정신적인 터를 건설해야 한다는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국내외의 문화교류도 날따라 빈번해지며 소수민족문학도 발전과 번영기를 맞았다. 이러한 것들은 소수민족문학번역사업을 진일보로 추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덤으로 주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절박한 수요로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부름에 적응하고 우리 나라 문학발전을 고무하는 형세에 적응하기 위하여 중앙 선전부와 재정부 및 류운산 등 중앙령도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속에서 중국작가협회는 제8차 대표대회 이후 ‘중국소수민족문학발전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실시하였다. 동시에 번역부축전문대상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아래에 민역한(民译汉), 한역민(汉译民), 중역외(中译外), 외역민(外译民) 등 4개 부서를 두었다. 민역한이란 소수민족언어로 창작된 우수한 작품을 한어로 번역하여 한어를 사용하는 곳으로 전파하는 것이고 한역민이란 상기년도의 한어로 창작된 우수한 소설, 시, 산문, 보고문학 작품을 소수민족언어로 번역하여 소수민족언어지구 독자들과 교류하는 것이며 중역외란 한어로 된 소수민족문학의 우수한 작품을 여러가지 외국어로 번역하여 국제문학계에 추천하는 것이다. 외역민이란 최근의 가장 우수한 외국문학작품을 여러가지 소수민족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의 인재와 재력, 물력과 소수민족언어의 사용 및 번역의 실제적인 현황으로 볼 때 우리의 사업은 몽골어, 장어, 위글어, 까자흐어, 조선어로부터 시작하여 상호 번역을 하게 되며 이로써 경험을 축적하고 ‘민족문학’의 다섯가지 언어문판을 상대할 수 밖에 없다. 외국어작품의 상호 번역은 잠시 소수민족언어창작작품을 외국어작품으로 번역하는 데 국한하게 되고 원작자의 뜻과 국제 번역계의 수요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소수민족언어작품과 한어작품지간의 상호 번역을 적시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소수민족언어작품지간의 상호 번역과 외국어작품을 직접 소수민족언어작품으로 번역하는 등 사업에도 참담고 착실한 우리의 노력이 따라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의의는 중국의 국정이 결정한 것이다.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고 번영시켜야 한다는 실제적인 요구가 있는 데다 다원문화를 존중해야 하고 조수처럼 밀려오는 인류문명의 공동한 성과를 함께 누려야 한다는 세계적인 조류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기





본국정이 바로 이리하다.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다원일체였다. 거주구역이 다양하고 생산형식이 현란하며 생활방식이 다채롭고 사회형태가 서로 다르며 민족의 계통이 각각이지만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화목, 사회의 조화로움은 시종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의 기본적인 문화국정은 이리하다. 력사는 유구하고 휘황하며 종교는 각양각색이고 언어는 풍부하고 감칠맛이 있다. 문예의 백화는 다투어 피고 풍토와 인정은 아름다움을 다투며 공존하고 문화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세계 4대발명의 거대한 성과와 자리를 함께 해왔다. 우리 문학의 기본국정은 이리하다. 여러 민족은 모두 끝없이 귀중한 문학전통과 문학유산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게는 민족과 지역을 넘어섰고 심지어 국가경계라는 울타리를 넘어섰다. 소수민족의 구두로 전해진 유산과 한족들의 서면으로 된 진품에는 여러가지 류형과 체재, 제재, 풍격, 양식, 이미지에 이르는 문학정수들이 수없이 많고 모두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함께 중국문학의 장려한 경관을 만들었고 세계문학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지리와 사회적인 시공, 문화전통, 특히 언어문자의 장애로 하여 그들지간의 교류는 아직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자원의 리용이 절대적으로 결핍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가치를 부활시키고 활용하는 데 노력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소수민족언어로 된 문학작품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한족문학경전이 광대한 소수민족독자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중국문학의 전체성, 통일성의 존재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단 이들이 품고 있는 재부와 힘을 동원한다면 우리의 문학원지는 끝없이 쏟아지는 활명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문학창작을 떠날 수 없고 더구나 효과적이고도 활발한 문학번역을 떠날 수 없다. 그것은 문학번역은 심미적인 높낮이와 문화적인 시각, 정신적인 높이로부터 민족간의 료해를 이루게 하고 문화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사회진보를 이끌어가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령혼들을 이어주는 무지개다리를 놓아주어 의혹과 고독을 풀어주고 원한과 증오를 뿌리 뽑아 열림과 포용을 습관시키고 겸손과 누림을 함께 하는 것을 배워주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 나라는 다민족의 사회주의국가이



다. 이 거대한 대가정 속에서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고 여러 민족 문학은 공동한 진보와 번영으로 당대 중국문학의 장엄한 사시를 쓰고 있다. 시대와 인민은 문학이 진일보로 정신적인 창조력을 활성화하게 하고 도덕건설을 추동하며 사회공감대를 응집시키고 국민의 수양을 제고하게 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해방 후 당과 정부는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중국소수민족문학의 존재와 발전수준은 아직까지 균형적이지 못하다. 어떤 민족은 발달한 서사문학과 구전문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민족은 모어창작에 능하며 어떤 민족은 두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하여 창작하기도 한다. 어떤 민족은 작가와 문학의 력사가 길고 어떤 민족은 새중국이 성립된 후거나 개혁개방 후에야 자기 민족의 작가와 작품을 내놓았다. 어떤 민족은 모어창작비율이 높고 어떤 민족은 대부분이거나 심지어 전부가 다른 민족의 언어로 창작한다. 어떤 민족의 대가들은 정품이 수없이 많지만 어떤 민족은 아직까지 새롭게 양성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의 힘을 엮어주고 전체적인 추진을 강화하며 중점을 돌파하여 새로운 민족관계를 건립하도록 하며 고도로 되는 국가적 동질감을 실현하고 여러가지 사회적 힘을 결집하는 데 큰 작용을 놀아야 한다. 동시에 문학의 본체적 의미상에서 다민족언어의 창작을 존중하고 제창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문학번역에 대한 참여와 지지를 빌어 적극적으로 국내외 각종 리념의 부딪침을 실천해 나가야 하며 여러 민족의 우수한 성과들을 서로 교류하여 진일보로 민족작가들의 심미수준과 창작능력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 경험들을 교류하고 습득하고 교류중에서 자양분을 섭취하게 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자립을 완성하게 하여야 한다. 서로의 래왕에서 표현을 배우고 귀담아듣는 법을 익히게 하며 감상하고 감상을 받는 것을 습관화하여 사람들의 진취심을 부추기고 선과 미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중점으로 하는 중국꿈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문화의 배경을 말할 때 중국소수민족문학은 중화문학의 거대한 한부분일 뿐 아니라 국제문학의 일부분으로 튼튼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 문학은 고유한 정신적인 마당을 포기하여서는 존재할 수 없고 더우기는 중국문학을 떠나서 성장할 수 없으며 세계문학을 외면



하여서는 흥성할 수 없다. 오늘의 문단에서 어떠한 실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소수민족작가라 하더라도 본 민족 문학 어머니의 양육과 자기의 두터운 생활축적, 간고한 생명체험과 피나는 사색의 단련이 없고 다른 민족 문학과 세계문학의 자양분을 섭취하지 않고 커온 작가는 없다는 것을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오늘처럼 대개방, 대교류, 대충돌, 대경쟁의 국제문화환경 속에서 소수민족작가들은 특별히 국가적 책임과 세계적인 안목, 인류의 정서와 모든 문명의 성과에 경의를 가지고 민족의 이야기를 끌어내야 하고 자기 민족의 독특한 창조를 보여주고 자기 국가의 형상을 창조하고 함께 인류의 평화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의 수많은 민족은 국경을 넘어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소수민족문학과 번역은 국제적인 전파에서 우세를 가지고 있고 특수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문화가 세계로 나가고 이웃을 다독이며 이웃과 친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변문화 외교사업과 문화쇼비니즘을 반대하고 문화침투를 막으며 각국 인민들의 우의를 증진하고 국제 우호래왕을 추진하며 국가의 문화주권을 보위하고 국가의 문화안전을 보증하는 사업에 충분한 작용을 발휘하여야 한다.

번역을 우리 나라 고대에서는 ‘전역(传译)’이라고 불렀다. 동중서의 《춘추번영(春秋繁榮)》의 〈왕도편(王道篇)〉에는 “역관을 두어 전역(传译)하여 조정을 돕는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역이란 구두어 또는 서면언어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전역의 내용이란 옛날에는 정치, 상무무역, 종교, 군사와 부분적인 문학일 것이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과학기술과 철학, 사상, 법률 등을 첨가했고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커져 ‘문학번역’이라는 개념까지 나오게 되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문학번역도 다른 번역과 마찬가지로 모두 엄복이 제창한 ‘신(信)’과 ‘아(雅)’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표달이 류창하고 명랑해야 하며 언어가 우아하고 아름다와야 할 뿐 아니라 ‘이미지에 젖게 하고 뜻을 품게 하는’ 경지에 이르게 하여 사상적인 내용으로부터 상징적인 의미, 감정의 표현, 예술형식 등 여러 면에서 완벽에 완벽을 추구하여 이미지와 생동함을 전달하고 미적인 감각과 매력으로 넘치게 하여야 한다. 구마라십, 법현, 현장, 엄복, 림금남, 박뢰, 풍질(冯鍾), 계선림 등과 같은 번역가들은 바로 심오한 문장수양을 갖춘 대가들이며 일필휘지하는 고수들이자 예



술적인 심미관을 가진 천재들이다. 중국소수민족문학발전프로젝트 번역부추전문대상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오늘날 중국소수민족언어번역영역의 걸출한 대표들이다. 그들은 모두 문학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소수민족문화의 발전과 번영에 미룰 수 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덕성과 재능을 겸비하고 취향이 견정하며 달갑게 희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피타는 노력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었기에 이번 사업이 질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추진되게 되었고 중국소수민족문학번역사업에서 참신하고 빛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번 사업에는 내몽골, 서장, 신강, 칭해, 감숙, 연변 등 자치구와 성, 자치주 작가협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사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참답게 조직하고 번역하였으며 편집하고 설계하였으며 ‘새벽을 맞으며 지새운 밤 헤아릴 수 없었기’에 광대한 한문독자들이 소수민족모어창작문학의 심오한 깊은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소수민족모어독자들도 가장 빠른 속도로 중국문학의 최신정보와 선도적인 경향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최신성과를 함께 누리게 되었다. 특히 이중언어로 거침없이 열독할 수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잠룡이 하늘을 날고 비룡이 땅을 거닐 듯이 중국문학의 다채로움과 다양함, 기이함에 몸을 담글 수 있었다.

이러한 번역성과를 출판에 맡기게 되는 때 우리는 끝없는 존경심을 가지고 여러 민족 문학번역가들과 원작 작가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번역출판사업을 전심전의로 조직하고 지도해준 자치구, 성, 자치주의 지도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그리고 중국작가출판집단과 자치구, 성, 자치주의 유관 출판단위에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 여러 분야의 관심과 지지와 참여가 있었기에 소수민족문학의 이번 성대한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중국문학의 아름다운 앞날과 빛나는 전망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1월 26일

권두언

조선문권



권두언

《중국 당대문학작품선집》이 해빛을 보게 되었다. 중국작가협회 소수민족문학번역대상의 일환으로 출판되는 이번 선집은 중국작가협회에서 원고를 선택하고 연변작가협회에서 번역을 조직하고 출판에 교부하게 되었다. 150만자(한문)에 5부로 되는 선집은 중편소설편, 단편소설편, 시가편, 수필편, 보고문학편으로 되어있었고 방대한 원고량은 번역부터 하나의 큰 프로젝트였다. 연변작가협회에서는 주석단회의를 열고 번역을 잘할 데 관하여 수차례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번역일군들을 무었다. 그리고 작가들의 특성을 살려 동일한 장르를 창작하는 작가가 번역을 맡기로 하였고 최종 검열은 장백산잡지사의 리혜편집이 맡기로 하였다. 이렇게 큰 문학프로젝트는 중국작가협회의 관심과 지지, 연변작가협회 작가들과 번역일군 그리고 편집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우리 민족은 지정학적인 원인과 역사적인 원인으로 하여 중국의 문화와 문학의 영향을 깊게 받고 교류력사도 유구했는데 서사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그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자기의 찬란한 문화와 문학을 창조하였고 중화문명의 전반적인 발전의 역사시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문학대가들을 배출하였다. 고대로부터 《시경(诗经)》, 《초사(楚词)》와 같은 작품집들이 있었고 당시, 송사, 명, 청



의 소설들에 이르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명작들을 낳아 인류문화의 발전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다. 《시경》과 《초사》 같은 작품집 말고도 《삼국연의》, 《수호전》, 《홍루몽》, 《서유기》 등 수많은 작품들은 우리 민족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번역에 의한 중국문학의 전파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문학의 발전에 심오한 영향을 주었고 우리 문학의 역사적인 원류를 이루는 데 공헌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찍부터 우리 민족은 중국문학에 대한 번역을 시작하였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량은 어마어마하다. 특히 우리 민족이 중국에 이주를 하여 중국조선족으로 발돋움을 하며 자기의 출판사를 가지게 되고 자치주를 성립하면서 중국문학의 고전 뿐 아니라 현대작가들의 작품도 수없이 번역, 출판되었다. 로신, 파금, 심종문, 모순, 로사와 같은 대가들의 작품은 물론 《림해설원》, 《청춘의 노래》...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작가들과 작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는 모두 그 시기의 번역이 이루어낸 결과물이고 성과이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문화건설과 문학, 나아가 문학번역사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민족문화 무용론과 말살정책 아래에서 우리의 문화와 문학은 물론 문학번역사업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사경의 변두리로 몰리게 되었다. 다행히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중국문학은 새로운 흥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의 문학번역사업도 새로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여러 문학잡지들에서 그 시기 창작된 중국문학의 우수한 작품을 번역하여 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진달래》라는 번역지를 꾸려 그 시기마다 창작되는 중국의 우수한 작품들을 우리 민족에게 소개하였다. 이는 중국문학번역의 흥성과 갈라놓을 수 없다. 그 시기 중국문학에서 두각을 내밀고 있는 작가들의 우수작품들이 거의다 번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우리 민족의 문학번역사업이 가장 흥성하던 시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날로 심화되었고 따라서 중국의 문학도 세계의 문학흐름에 발을 맞추려고 비상한 날개짓을 시작하였으며 우리 민족도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세계의 조류에 눈높이를 맞추기 시작하였다. 민족력사의 연원으로 하여 한국과의 교류가

깊어졌고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른 시장화의 물결 속에서 문화와 문학은 방황을 시작하였다. 어느 날인가 《진달래》라는 번역잡지가 자취를 감추었고 문학지에서의 중국문학번역작품도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문학도 중국문학과는 색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를 두고 아직 어떻게 할 결론을 내릴 수 없겠지만 문화와 문학이 가지는 속성으로나 중국조선족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족문학번역사업의 부진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중국작가협회 소수민족문학번역대상의 첫 프로젝트로 이 선집이 출판되는데 이는 우리 민족 문학이나 우리 민족 독자들에게 있어서 역사적 의의가 깊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 독자들은 다시 한번 중국문학의 우수한 작품들을 실시간으로 열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계기를 발판으로 우리 민족 문화와 문학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스타트가 되었으면 한다.

연변작가협회

조선
문
권



권
두
언

차례

조선문
권



차
례

상식을 내세우고	진충 지음 / 김홍란 옮김	1
조롱박과 까치	현무 지음 / 김홍란 옮김	12
아득하게 멀고 고요해	갈수평 지음 / 김홍란 옮김	16
그 누구도 봄비 속에서 울지 않는다	鲍尔吉·原野 지음 / 김홍란 옮김	29
해 지는 곳의 파랑새	곽설과 지음 / 김홍란 옮김	36
먼 고향	류성원 지음 / 김홍란 옮김	40
대하의 혼	류적생 지음 / 김홍란 옮김	45
새 매장이 개업할 때	리벽화 지음 / 김홍란 옮김	55
추억 속의 계수나무와 치자꽃	만녕 지음 / 김홍란 옮김	57
팬과 지기	여광중 지음 / 김홍란 옮김	64
고향의 차	오소반 지음 / 김홍란 옮김	71
밀 한광주리	왕신군 지음 / 김홍란 옮김	75
소박한 단호박	조극홍 지음 / 김홍란 옮김	77
고독의 술	조안표 지음 / 김홍란 옮김	80
매화:추위의 한계	주문한 지음 / 김홍란 옮김	90
땅 위에서 잠들기와 깨어나기	류량정 지음 / 김홍란 옮김	93
배갑문(외1편)	방배 지음 / 리동혁 옮김	101
고향, 옛친구, 지나간 이야기	왕영춘 지음 / 리동혁 옮김	106
언니, 오늘 밤 나는 천도호에서 언니를 그려요	소창상 지음 / 리동혁 옮김	109



평범한 어머니	우전홍 지음 / 리동혁 옮김	113
위챗 속의 마을	장세근 지음 / 리동혁 옮김	117
독서를 말하다(외1편)	가평요 지음 / 박진화 옮김	120
풀, 나무 그리고 사람	만랑 지음 / 박진화 옮김	130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샘의 노래	박진화 옮김	137
오가는 즐거움	진건공 지음 / 박진화 옮김	145
우리들의 가원	륙매 지음 / 박진화 옮김	152
비원이 어린 가옥관	신천 지음 / 장정일 옮김	156
서진나루터 솔뚜껍국수	장연령 지음 / 장정일 옮김	161
미마의 목장	가마단정 지음 / 장정일 옮김	167
우리 곁의 선경	모미 지음 / 장정일 옮김	172
신앙은 어이하여 아름다운가	고사 지음 / 장정일 옮김	180
충실형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뢰달 지음 / 장정일 옮김	190
통주, 대운하의 시작	왕검빙 지음 / 장정일 옮김	196
절창	한소혜 지음 / 최동일 옮김	201
바람막이램프 속의 장군	왕종인 지음 / 최동일 옮김	221
양무리 속의 기러기	애평 지음 / 최동일 옮김	225
모정의 대장장이	우건 지음 / 최동일 옮김	236
령감 속기	왕정균(미국) 지음 / 최동일 옮김	244
도시의 운치	진세옥 지음 / 최동일 옮김	253
자연시편	볼지·웬예 지음 / 최동일 옮김	264
고즈넉한 옛거리	피가가 지음 / 김견 옮김	275
봄빛이 슬프지 않다고 누가 그러던가	지자건 지음 / 김견 옮김	281
전야는 결코 애통해하지 않는다	범소파 지음 / 김견 옮김	286
동년은 언제 끝났는가?	진조분 지음 / 김견 옮김	293
일념에 삼천리	필숙민 지음 / 김견 옮김	298
작가의 품성	장위 지음 / 김견 옮김	305
후기		310

상식을 내세우고

진충 지음
김홍란 옮김

조선문
권



수필문학선집

2016년도의 설은 한마디로 경사스럽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잘 지내었다. 열손가락 중 아홉손가락은 이 같은 느낌이였으며 그중 가장 작은 새끼손가락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얼마나 많이 나뻐던 건 아니고 조금 불안했을 뿐이다. 리치 대로라면 이런 것 또한 정상 상태이며 변증법적 유물주의 철학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매 사람의 어느 손가락이 불편했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공통점이 있기도 하다. 내 자신의 불안함은 두가지 풀기 어려운 매듭에서 왔다. 워낙 그것은 나의 유별함 때문에 생긴 것이며 남들은 이런 걸로 근심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의외에 어떤 글을 읽고 보니(후에 그 글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그 글에서도 이 두가지를 말하고 있었다. 원말은 이렇다. “설기간 내내 사람들은 한 상해 여자애에 대해 의론했다.” 어린 여자애는 엄연히 설공연에 이은 ‘춘절 최대 총알받이’가 되었다.

중앙TV방송국에서 하는 설공연은 우리 자신의 각오가 낮은 데다 수년간 형성된 정형화된 형식이라는 생각에서 그 시간대면 거실의 텔레비전은 혼자 켜져있게 두었다. 그 때 우리 집에는 네 사람이 있었으며 그중 세 사람은 거실 한쪽에 있는 식탁에서 트럼프를 놀고 있었거나 혼자 서재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올라 마작을 놀았다. 그 시간



에 어떤 조사기관에서 전화를 걸어와 설공연을 보고 있다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참 난감할 것이다. 트럼프를 놓고 있는 세 사람은 사실 좋은 종목이 나오면 곧 나를 불러내어 시청하게 할 사명을 지고 있었다. 금년에는 그런 상황이 정말 생겼건만 내가 한창 편이어 선을 잡느라 나가지 못했다. 후에 알았지만 그건 미국의 어린 여자애가 춤을 추는 종목이었다. 설공연이 곧 끝날 무렵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 최연균이 창작한 단막극이 나왔냐고 물으니 안 나왔다고 한다. 최연균은 보정에 있을 때 나랑 같은 공장의 생활구역에서 지낸 적 있으며 아는 사이라 관심이 갔던 것이다. 없어도 괜찮아. 그다음은 질타소리를 들을 차례다. 수년간 그냥 이랬다. 엉큼한 심리에 의해 설공연을 질타하는 흥취가 설공연 자체에 대한 흥취보다 훨씬 컸다. 그런데 금년은 달랐다. 정면으로 다가오는 건 설공연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3정(三定)이었다: 정성(定性)-긍정적 에너지가 넘쳐나다; 정량(定量)-시청률 80%을 넘기고 만족도 90%을 넘기다; 정평(定評)-호평이 쏟아지다. 오랜 운동 선수의 사유에 곧바로 작동이 걸렸으며 자신의 각오가 낮고 각오의 제고가 형세의 발전을 못 따라 감을 깨달았다. 하긴 질타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다. 휴대폰에 일부 제목이 떠올랐는데 문서가 열리지 않는다. 열리는 건 다 자질구레한 내용들이다. 레를 들면 립싱크 같은 것이다. 이것도 질타인들의 각오가 낮음을 말해준다. 공연종목으로 볼 때 립싱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마치 설폭죽 속에서 인공재배한 철갑상어를 자연산 철갑상어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긍정적 에너지에 맞춰볼 때 주요한 건 가사내용을 제대로 똑똑히 듣는 것이지 선률이나 소리, 노래 숨씨 같은 건 아무 것도 아니었다. 배우고 제고하는 이런 과정은 그만하면 순리로왔지만 마지막이 되어서도 작은 불안은 있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은 설공연을 질타를 하기 위해 시청하는 것이었다. 질타를 못하게 한다면 권위부문에서 조사하는 시청률에는 별로 영향받지 않겠지만 실제 시청률은 줄어들지 않을까?

또 하나의 불안은 꽤나 큰 문제이며 이 글을 쓰기 전까지도 누그러들지 않았다. '상해 여자애의 도주'에 관해서는 마땅히 써야 하고 또 많이 써야 할 것 같다. 더구나 그것이 문학과 관련되기에. 문학의 생명력은 진실에 있으며 또 오직 진실에만 있기도 하다. 이 도주이야기



의 진실성은 많은 질의를 받고 있다. 어느 한 통계에 의하면 그 진실성을 믿는 사람은 절반 조금 넘을 뿐이며 진실성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각각 2할 넘게 차지한다. 하지만 문학의 진실은 생활의 진실과는 다르며 우리는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실화문학과 픽션을 믿도록 하는 게 가장 어렵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 도주이야기는 여러 면으로 보아도 독특하고 정교하게 편집이 잘된 단편소설이다. 생활의 생동감이 뛰어나진 않지만 그러나 현재 호평이 쏟아지는 일부 작품보다는 훨씬 낫다.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제야의 음식을 이 정도로 만들었으니 가히 ‘전형화’수법의 본보기라고 할 만하며 대학교 창작과목 교과서에 수록해도 가히 부족하지 않다. 그것의 지향은 그토록 집중되었고 또 그토록 폭넓다. 인물, 사건, 과정, 인과가 단순하고 분명하면서도 놀라울 정도의 장력을 갖고 있어 여러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말이 있게 하고 일부 학과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각자 전공 범위 안에서의 투철한 견해를 즐겨 발표하게 한다. 더 신기한 건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면서 얕은 사유를 하기 좋아하는 네티즌들이 두 남녀주인공을 ‘봉황새남자’와 ‘공작새녀자’로 개괄했을 때 그것이 아주 정확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그것은 또 낚시와도 흡사하다. 트럼프 게임에 나오는 ‘낚시’가 아니라 집법자들이 ‘낚시집법’하는 그 낚시이다. 어록체로 서술하면 ‘범을 굴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음모이다. 이 ‘모(謀)’자는 알아보기 너무 쉽다. 일이 금방 드러났을 때부터 나는 이런 것이 ‘끌려’나오리라고 짐작했으며 아니나 다를가 과연 그러했다. 중국사람은 언제나 이렇다. 나중엔 틀림없이 ‘로동자가 입을 열었다’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야 만다. 이번에 소리를 낸 건 강서 여자라고 자칭하는 작가이다. 그의 아이디는 ‘이아2016’이며 이 글을 발표하기 위해 특별히 등록한 게 분명하다.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제목은 <강서 여자애가 상해 여자애한테 보내는 편지, 강서 농촌은 젊은이의 사랑에 영양을 공급할 능력이 있다>였다. 제목만 봐도 틀림없이 긍정적 에너지로 넘친다는 걸 알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사랑과 결혼관 등 모든 게 표준적인 답안이었다. 그러는중 작자가 이제 겨우 26세의 나이에 아직 미혼(갓 “달콤하게 결혼할 상대가 생겼다”고 함)인데 자신을 시범의 본보기로 내세우는 건 좀 이르지 않냐는 생각에 어